

# 2021학년도 제2학기 소모임 운영 결과 보고

2021.12.17.

# 목차

1. 토르플 자격증 취득 준비 소모임 <писк писк> -----	1
-운영계획서	
-활동보고서	
-활동 후기	
2. 영화 감상 소모임 <хорошо> -----	13
-운영계획서	
-활동보고서	
-활동 후기	
3. 외교 이슈 토론 소모임 <вечерняя газета> -----	30
-운영계획서	
-활동보고서	
-활동 후기	
4. 러시아어 동화책 만들기 소모임 <От А до Я > -----	46
-운영계획서	
-활동보고서	
-활동 후기	

## 2021학년도 2학기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소모임 운영계획서

<b>소모임명</b>	<b>ПИСЬКО ПИСЬКО</b>		<b>지도교수</b>	박 혜 옥 (인)
<b>분야 및 주제</b>	토르플 자격증 취득			
<b>소모임 소개</b>	토르플 1급을 목표로 기본기를 잡기 위한 토르플 자격증 기본 준비반입니다.			
<b>목표 및 필요성</b>	1. 토르플 기본 단계 자격증 취득			
	2. 러시아어2 수업 때 배운 내용 확장			
	3. 러시아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함			
	4.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습관 기르기 위함			
<b>기대효과</b>	토르플 기본 자격증 취득 및 러시아어 기본 토대 다지기			
<b>운영 방법 및 내용</b>	<b>운영 방법</b>	매주 화요일 3시부터 1시간~2시간 동안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 단어 시험, 수업 복습 및 교재를 통한 학습 진행		
	<b>운영내용</b>	1. 단어 시험을 볼 예정이며, 실력에 따라 단어 개수를 늘릴 것 2. 듣기, 말하기, 작문 등 약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할 것 3. 매주 소모임 때 나온 질문을 모아 교수님께 여쭙보고 다시 정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칠 예정		
	<b>장소</b>	송백관 403호		
<b>참고도서</b>	정교수님 토르플 기본 단계 (문법,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b>기타사항</b>	토르플 어학 시험은 넉넉한 기간을 두고 22년 1월-2월 사이에 응시할 예정임.			
<b>참여 학생</b>	<b>학번</b>	<b>이름</b>	<b>연락처</b>	<b>비고(팀내 역할)</b>
	202020025	김은지		소모임장
	202020090	이다빈		소모임 차장
	202020126	정한아		부원
	202020045	박성호		부원
	202020103	이은미		부원
	202020017	김성주		부원

■ 소모임 대표

소모임명	ПИСК ПИСК				
대 학	글로벌인문학부대학	학 과	글로벌지역학부	학 년	2
성 명	김은지	학 번	202020025		
주 소					
거 주 지					
연락처					

■ 회원명단

일련 번호	학과	학년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1	글로벌지역학부	2	202020025	김은지		소모임장
2	글로벌지역학부	2	202020090	이다빈		소모임차장
3	글로벌지역학부	2	202020126	정한아		
4	글로벌지역학부	2	202020045	박성호		
5	글로벌지역학부	2	202020103	이은미		
6	글로벌지역학부	2	202020017	김성주		
7						
8						
9						
10						

■ 2021학년도 2학기 <писк писк> 소모임 활동 계획서

모임 및 행사명	일 시	장 소	모임(행사)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OT 및 회의	11/2	송백관	요일 및 시간 결정, 교재 선정
	11/9	송백관	문법 정리
	11/16	"	매주 진도를 확인하며 결정 예정
	11/23	"	"
	11/30	"	"
	12/7	"	"

## 2021년 2학기 소모임 1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ПИСЬКО ПИСЬКО	지도교수	박혜옥 (인)
일시	11월 2일 (화)	장소	송백관 403호
참석자	김은지, 이다빈, 정한아, 박성호, 이은미, 김성주 (전원 참석)		
1회차 목표	모임 날짜 및 시간 결정, 교재 선정, 학습 방식 정하기		
내용 및 과정	<p><b>1. 모임 날짜 및 시간 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가 학교에 나오는 화요일 3시로 결정하였음.</li> </ul> <p><b>2. 교재 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모두 각자가 원하는 교재를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눔.</li> <li>- 단어장은 각자 구매하거나 전공책 뒤에 정리된 단어를 활용하기로 함.</li> <li>- 교재는 정교수님 토르플로 선정하였고, 단어 파트를 제외한 문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공부하기로 하였음.</li> </ul> <p><b>3. 학습 방식 정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단어 시험을 보기로 하였으며, 단어 개수는 30개로 결정함. 실력에 따라 점차 늘려나갈 예정임.</li> <li>- 대면으로 공부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말하기, 읽기를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그 외는 혼자 학습한 뒤 답을 맞춰보거나 묻고 답하며 복습하는 방식을 채택함.</li> <li>- 하루에 한 번씩 러시아어 개인 공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사진찍어 공유하며 인증하기로 함.</li> <li>- 소모임 중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은 수업 종료 전 한꺼번에 모아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다 같이 복습하기로 함.</li> </ul>		
자체평가	<p>대면 수업을 통해 각자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 정확히 알게 되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됨. 모두가 러시아어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활동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p>		
다음모임 계획	<p>11/9 (화) 15:00~ 송백관 403호</p>		

소모임명	ПИСК ПИСК	지도교수	박혜옥 (인)
------	-----------	------	---------

**1회차 사진 및 결과물**

운영계획서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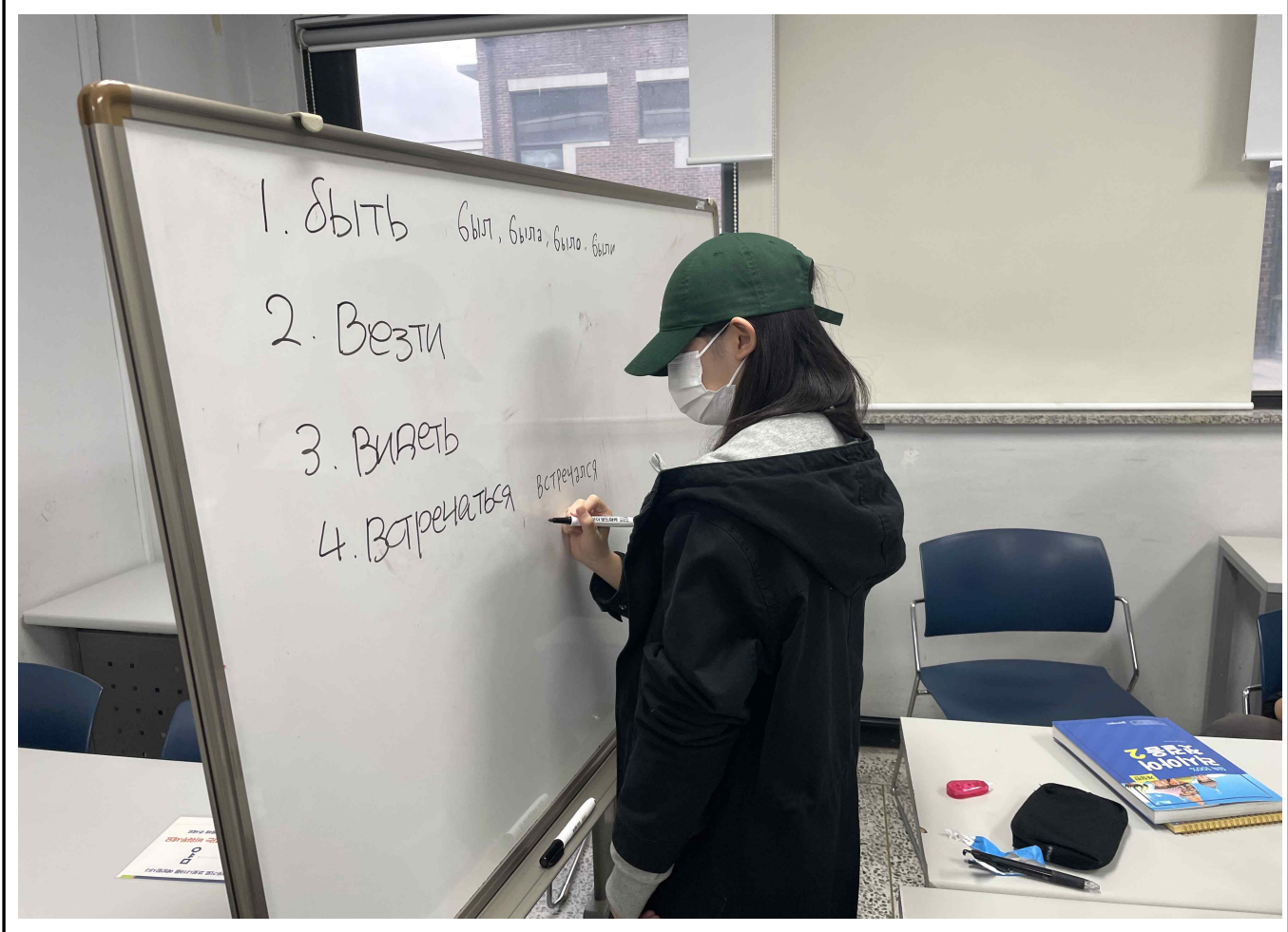
## 2021년 2학기 소모임 2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ПИСЬ ПИСЬ	지도교수	박혜옥 (인)
일시	2021. 11. 09 (화)	장소	E403
참석자	김은지, 이다빈, 정한아, 박성호, 김성주, 이은미		
2회차 목표	전공 교재(실속 100% 러시아어 첫걸음 1)를 통한 주요 내용 복습, 학습 방식 구체적으로 정하기		
내용 및 과정	<p style="text-align: center;">1. 학습 방식 구체적으로 정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주일에 30개의 단어 암기는 좀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50개를 외우기로 하였고, 매주 시작 전 시험을 보기로 하였다. 또한, 단어장은 &lt;TORFL 2000&gt;으로 선정하였다.</li> <li>- 전공 수업 시간 변경에 따라 소모임 시간도 14:30 - 16:30 으로 30분 앞당겨졌다.</li> <li>- 혼자 학습한 내용을 인증하는 것으로 단어 및 문법 적어서 사진찍어 내는 것은 월, 수, 금 주 3일만 제출하고 들어가야할 필수 내용으로는 단어 5개 이상으로 정했다.</li> <li>- 또한, 복습 종료 후에 교재가 준비된다면, 소모임에선 말하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공부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듣기보다는 문법면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듣기 80% + 문법 20% 구성으로 학습하기로 하였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2. 주요 내용 복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운지 오래되어 까먹었을 법한 예비과 ~ 7과까지의 내용을 복습하였다. 소모임장이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퀴즈를 내면 각자 노트에 답을 적고, 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칠판에 나와서 적는 식으로 진행하였다.</li> <li>- 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거나, 한 명만 계속 대답을 하는 상황이 오면, 돌아가면서 칠판에 나와서 적게 하였는데 이 점이 소모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li> <li>- 퀴즈에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틀리면 그 부분을 따로 공부해오기로 하였고, 다음 소모임때 다시 점검하기로 하였다.</li> <li>- 소모임 인원 모두가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은 '불규칙' 부분이였다. 명사의 불규칙 복수 형태, 동사의 불규칙 과거 변화 등 필수적인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약한 모습이 보였고, 더불어 인칭 대명사 또한 필수적인 암기가 필요해 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li> </ul>		
자체평가	<p>교재 준비가 안되어 복습을 하게 된 것이 좀 아쉽지만, 막상 하고나니 복습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초반이라 정확한 방식이 안잡혀 있어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쉽다.</p>		
다음모임 계획	<p>11/16일 (화)</p> <p>전공 교재 8과 ~ 11과까지의 복습과 단어 시험, 이전에 틀렸던 내용 공부해 온 것 확인 등.</p>		



소모임명	ПИСК ПИСК	지도교수	박혜옥 (인)
------	-----------	------	---------

2회차 사진 및 결과물



소모임명	ПИСК ПИСК	지도교수	박혜옥 (인)
------	-----------	------	---------

2회차 사진 및 결과물



## 2021년 2학기 소모임 3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ПИСЬ ПИСЬ	지도교수	박 혜 옥 (인)
일시	2021. 11. 16. (화)	장소	E403
참석자	김은지, 이다빈, 정한아, 박성호, 김성주, 이은미 (전원 참석)		
3회차 목표	전공 교재(실속 100% 러시아어 첫걸음 1)를 통한 주요 내용 복습, 토르플 기본 단계 문제 풀기		
내용 및 과정	<p style="text-align: center;">1. 주요 내용 복습</p> <p style="text-align: center;">- 지난 학기에 배웠던 문법들을 복습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소모임장이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퀴즈를 내면 각자 노트에 답을 적고, 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칠판에 나와서 적는 식으로 진행하였다.</p> <p>- 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거나, 한 명만 계속 대답을 하는 상황이 오면, 돌아가면서 칠판에 나와서 적게 하였는데 이 점이 소모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 퀴즈에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틀리면 그 부분을 따로 공부해오기로 하였고, 다음 소모임 때 다시 점검하기로 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2. 단어 시험</p> <p style="text-align: center;">매주 암기하기로 약속했던 단어를 잘 외웠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단어 시험을 보고, 서로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시험에서 틀린 단어들은 다음 외울 단어와 함께 추가로 공부해오기로 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3. 토르플 기본 단계 문제 풀이</p> <p style="text-align: center;">토르플 기본 단계를 우선 각자 풀어보고 함께 답을 맞춰보았다. 약 40문제 정도 문제 풀이하였고, 남은 문제들은 다음 소모임까지 각자 풀어오기로 하였다.</p>		
자체평가	토르플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방향이 잡힌 것 같아 좋았지만, 그만큼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모임 계획	11/23일 (화) 전공 교재 복습과 단어 시험, 토르플 문제 풀이, 이전에 틀렸던 내용 공부해 온 것 확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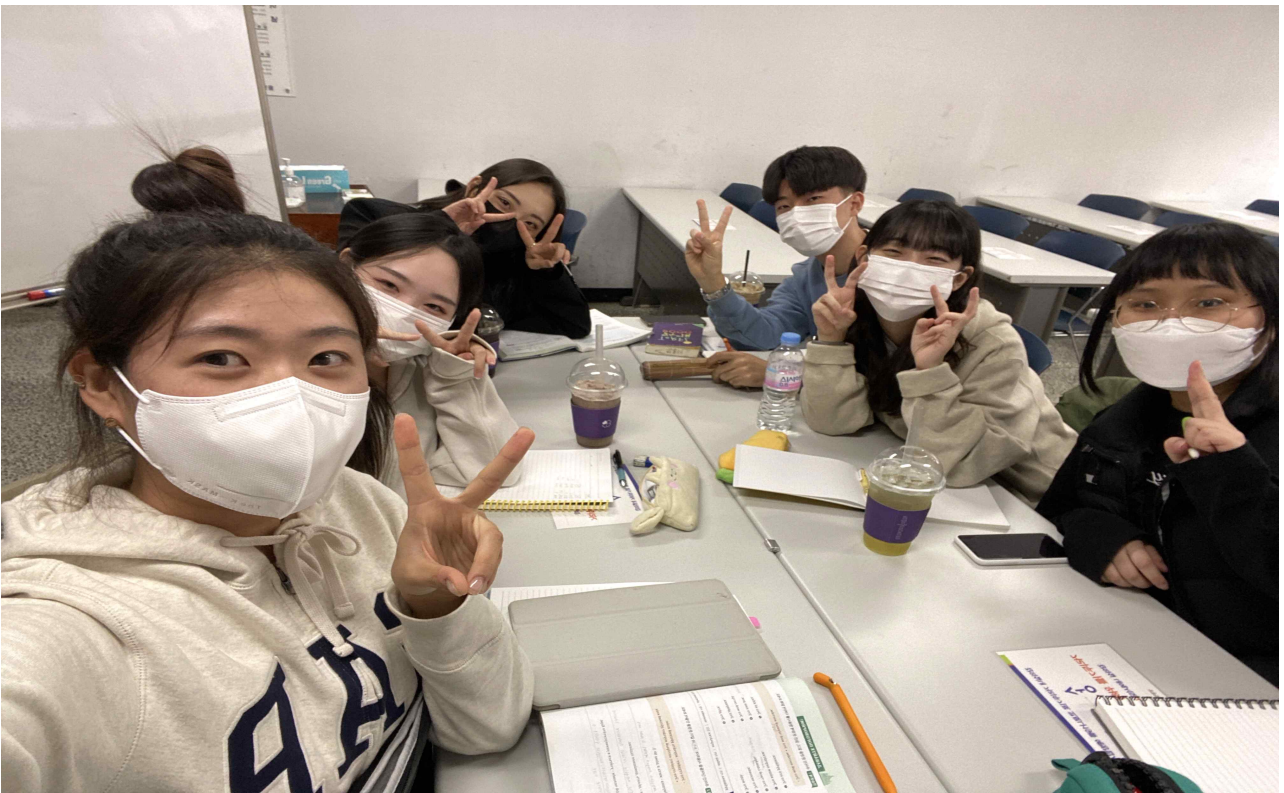
소모임명

ПИСК ПИСК

지도교수

박혜옥 (인)

3회차 사진 및 결과물



## 2021년 2학기 소모임 4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ПИСЬКО ПИСЬКО	지도교수	박혜옥 (인)
일시	2021. 11. 23. (화)	장소	E403
참석자	김은지, 정한아, 박성호, 김성주, 이은미		
4회차 목표	전공 교재(실속 100% 러시아어 첫걸음 1)를 통한 주요 내용 복습, 토르플 기본 단계 문제 답 맞추어보기		
내용 및 과정	<p style="text-align: center;"><b>1. 주요 내용 복습</b></p> <p style="text-align: center;">-지난 학기까지 배웠던 주요 단어, 동사, 문법을 복습하였다.</p> <p>*소모임장이 한 사람씩 지목을 하고 단어의 의미를 말하면 지목을 받은 사람이 해당 의미를 가진 러시아어 단어를 말하는 형식으로 단어를 복습하였다.</p> <p>*비슷하지만 다르게 사용되는 동사들에 대해 소모임원들이 차이점을 말하고, 돌아가면서 인칭에 따른 변화를 적는 형식으로 동사를 복습하였다.</p> <p>*소모임장이 한국어로 문장을 말하면 러시아어로 작문하는 형식으로 주요 문법을 복습하였다. 각자 노트에 작문했으며, 스스로 정확히 답을 썼다고 생각하는 학우가 나와서 칠판에 자신이 쓴 내용을 적음으로써 소모임원들이 더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만약 모두가 자신의 답에 확신이 없을 경우 돌아가면서 칠판에 답을 썼는데, 이를 통해 소모임원들이 활동에 느슨해지지 않고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b>2. 단어 시험</b></p> <p>-단어 공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단어 시험을 본 후 서로 시험지를 바꿔 채점하였다. 모르거나 틀린 단어들은 추가로 공부해오기로 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b>3. 토르플 기본 단계 문제 답 맞춰보기</b></p> <p>-지난 시간에 각자 풀어오기로 했던 70문제 가량의 토르플 기본 단계 문제들에 대해 우선 소모임원들끼리 답을 맞추며 채점해보고 모두의 답이 통일되는 임시적으로 맞은 것으로 간주했다. 답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점을 보류하고 각자가 고른 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고 서로 고민하면서 답을 다시 점검해보았다. 그 후 실제 답을 보며 채점해보고 선지를 보며 해당 답이 왜 정답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p>		
자체평가	<p>토르플 문제를 반복하여 더 많이 풀어봄으로써 문제 유형을 알게 되고 풀이 방법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긴 것 같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어서 좋았다. 학우들이 아직 동사의 뜻과 상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문제 풀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점차 문제도 더 많이 풀어보고 공부해나가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p>		
다음모임 계획	<p>11/30 (화)</p> <p>전공 교재 복습과 단어 시험, 토르플 문제 풀어온 것 답 맞추어보기, 부족한 부분 공부해온 것 확인 등.</p>		

4회차 사진 및 결과물



## 2021년 2학기 소모임 활동 후기

소모임명	ПИСК ПИСК	지도교수	박혜옥 (인)
김성주	<p>오랫동안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토르플 문제 형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지난 내용들을 복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막막했던 토르플을 동기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고, 학습과 더불어 동기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p>		
김은지	<p>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동기들과 함께 한 층 성장하는 소모임이었기에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진행에 있어 대면 활동이 필수적임을 느꼈고, 서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소모임을 계획하고 싶습니다</p>		
이다빈	<p>다른 언어에 비해 쉽게 배우기 힘든 언어를 동기들과 소모임을 진행하여 함께 학습하면서 기본기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과 동기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 학교 생활을 보다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p>		
이은미	<p>TORFL 기본 소모임에 참여하는 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학교 강의에서 배운 러시아어 문법과 단어를 복습하며 개념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고, 함께 모임원들과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어 학업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TORFL 기본 소모임 시간은 제게 있어서 서로의 지식을 나누면서 스스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p>		
박성호	<p>한달 조금 넘는 기간 모임원들과 같이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1,2학기 배운 내용을 복기할수 있었고 모임원들과 한층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얻어가는 것이 많은 소모임이었습니다.</p>		
정한아	<p>이번 학기 토르플 기본 소모임에서 활동하며 좋았던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같이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우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학우들을 보면서 덩달아 저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러시아어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고 토르플 준비에 대한 막막함을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 2021학년도 2학기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소모임 운영계획서

<b>소모임명</b>	<b>хорошо</b>	<b>지도교수</b>	이 희 원 (인)	
<b>분야 및 주제</b>	러시아 영화 감상			
<b>소모임 소개</b>	러시아 영화 감상을 통해 러시아어 어휘를 배우고 러시아의 문화나 특색을 이해하고 감상느낌을 공유			
<b>목표 및 필요성</b>	1. 러시아 문화 및 러시아인들의 가치관이나 특색 이해함.			
	2. 러시아어 어휘 습득할 수 있음.			
	3. 러시아 영화 감상 후 홍보 카드 뉴스 제작을 통해 러시아 영화의 대중화에 힘씀.			
<b>기대효과</b>	러시아 영화를 보며 러시아인들만의 가치관이나 특색을 알고 문화를 이해하고 토론하며 균형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음.			
<b>운영 방법 및 내용</b>	<b>운영 방법</b>	온오프라인 병행 활동		
	<b>운영내용</b>	-영화 감상 후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감상문 작성 후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 공유 -러시아 영화의 날 운영 -러시아 영화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		
	<b>장소</b>	송백관 403호 혹은 온라인		
<b>참고도서</b>				
<b>기타사항</b>				
<b>참여 학생</b>	<b>학번</b>	<b>이름</b>	<b>연락처</b>	<b>비고(팀내 역할)</b>
	202120006	고민지		소모임장
	202120049	노은균		부원
	202120149	한규리		부원
	201620233	박선화		부원
	201720007	권혜정		부원
	201920104	이벤시		부원
	201920119	이혜원		부원



■ 소모임 대표

소모임명	хорошо				
대 학	글로벌인문학부대학	학 과	글로벌지역학부	학 년	1
성 명	고민지	학 번	202120006		
주 소					
거 주 지					
연락처					

■ 회원명단

일련 번호	학과	학년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1	글로벌지역학부	1	202120006	고민지		소모임 부장
2	글로벌지역학부	1	202120049	노은균		
3	글로벌지역학부	1	202120149	한규리		
4	글로벌지역학부	3	201920104	이벤시		
5	글로벌지역학부	3	201920119	이혜원		
6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4	201620233	박선화		
7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4	201720007	권혜정		

■ 2021학년도 2학기 <хорошо> 소모임 활동 계획서

모임 및 행사명	일 시	장 소	모임(행사)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OT 및 회의	10/13	송백관	영화 감상반 <хорошо>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
영화감상	10/27	온라인	영화 <아이스>, <쓰리세컨즈> 감상 후 영화 추천 카드 뉴스 제작
영화감상	11/3	미정	온라인 투표를 통해 영화 선택 후 감상, 활동 계획
영화감상	11/10	미정	온라인 투표를 통해 영화 선택 후 감상, 활동 계획
영화감상	11/17	미정	온라인 투표를 통해 영화 선택 후 감상, 활동 계획
영화감상	11/24	미정	온라인 투표를 통해 영화 선택 후 감상, 활동 계획
<러시아 영화의 날> 개최	12/1	미정	러시아 영화 홍보를 위한 상영회 개최 예정
모임 결과 보고 제작	12/8	미정	영화 감상반 <хорошо> 결과 보고서 제작

## 2021년 2학기 소모임 1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хорошо	지도교수	이 희 원 (인)
일시	2021.10.13.	장소	온라인 ZOOM
참석자	고민지, 노은균, 한규리, 박선화, 권혜정, 이벤시, 이혜원		
1회차 목표	전반적인 운영 계획 수립 2주차 영화 정하기		
내용 및 과정	<p>#영화 감상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주 수요일 온오프라인 병행해 모임 운영</li> <li>-모임 전 화요일까지 영화 추천 및 투표를 통해 해당 주차 영화 선택하기로 함.</li> <li>-러시아 영화 상영회 개최 예정</li> <li>-참여가 힘들 때는 꼭 미리 말하기로 함.</li> </ul> <p>#2주차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간고사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주 활동은 쉬어가기로 함.</li> <li>-10월 24일(일)까지 각자 영화를 추천한 뒤 10월 25일(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영화 2개 선정, 선정된 영화를 2팀으로 나누어 감상하기로 함.</li> <li>-10월 27일(수) 5시 온라인 ZOOM을 통해 함께 영화 감상을 하기로 함.</li> <li>-2주차 영화 추천 게시글은 권혜정, 이벤시, 이혜원 학우가 영화 추천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로 함.</li> </ul>		
자체평가	다들 영화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의견이 나와 좋았음.		
다음모임 계획	10월 27일 수요일 온라인 ZOOM을 통해 영화를 감상할 계획		

소모임명	хорошо	지도교수	이 희 원 (인)
------	--------	------	-----------

**1회차 사진 및 결과물**

운영 계획서 따로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2021년 2학기 소모임 2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хорошо	지도교수	이 희 원 (인)
일시	2021.10.27.	장소	온라인 ZOOM
참석자	고민지, 노은균, 한규리, 박선화, 권혜정, 이벤시, 이해원 / 임정현(휴학생)		
2회차 목표	영화 감상 후 카드 뉴스 제작을 위한 감상 의견 공유		
내용 및 과정	<p style="text-align: center;">영화 &lt;아이스&gt;, &lt;쓰리세컨즈&gt;를 2팀으로 나누어 감상하였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아이스&gt; 이벤시, 이해원, 박선화, 한규리 &lt;쓰리세컨즈&gt; 권혜정, 임정현, 고민지, 노은균</p> <p style="text-align: center;">영화 감상 후 각자의 감상 의견을 냄. 이벤시, 이해원, 권혜정, 임정현 학우가 홍보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로 하였음.</p> <p style="text-align: center;"><b>&lt;아이스&gt;</b></p> <p style="text-align: center;">이벤시: 러시아 대중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음. 이해원: 가슴 따뜻해지고 유쾌한 로맨틱 상처 치유 영화인 것 같음. 박선화: 파트너, 코치, 엄마 등 여러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음. 한규리: 사샤가 나디아의 재활을 돕는 장면에서 쓰인 OST와 연출이 인상적임.</p> <p style="text-align: center;"><b>&lt;쓰리세컨즈&gt;</b></p> <p>권혜정: 결승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그 갈등이 해소되며 생기는 선수들의 연대감이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함. 임정현: 승리를 위해 선수들을 이끄는 감독과 선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음. 고민지: 미국과의 친선경기에서 이긴 후 입원해 있는 알렉스의 병실 앞에 찾아와 점수를 표현한 장면이 인상적임. 서로의 끈끈함과 동료애가 잘 나타나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함. 노은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게 흥미롭고 결승의 순간은 정말 영화같았음.</p>		
자체평가	<p>-영화에 집중해 가장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흥미로웠음. -비대면으로 영화를 감상한 것이 아쉬움.</p>		
다음모임 계획	11월 2일까지 카드 뉴스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3주차 활동은 11월 17일 예정.		

소모임명	хорошо	지도교수	이희원 (인)
2회차 사진 및 결과물			

### #쓰리세컨즈 홍보 카드 제작



**쓰리세컨즈**  
Движение Вверх  
(2019)

"완벽한 스포츠 드라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영화"  
"영화가 끝난 뒤의 아드레날린 중독에 빠졌다"

## 줄거리

국가대표 농구팀의 감독이 블라디미르 가란진으로 교체되고, 1972년 뮌헨 올림픽 남자 농구 결승전 금메달을 목표로 36년간 우승을 차지한 최강자 미국을 반드시 꺾어야 하는 소련 농구 대표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경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련의 타임아웃 요청을 듣지 못한 심판의 실수로 경기는 미국의 우승으로 종료된다. 이에 소련 농구 대표팀은 격렬히 항의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심판은 남은 시간을 3초를 선언하며 사상 유례 없는 재승부가 시작된다.

"다시 시작된 승부, 남은 시간 단 3초!"

17 권혜정  
19 임정현

## 등장인물



**가란진(Гаранжин)** : 소련 농구 대표팀 감독



**세르게이(Сергей)** : 슛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대표팀의 주장



**모데스타스 (Модестас)** : 대표팀의 완벽한 피지컬의 소유자

## 등장인물



**알렉스(Александр)** : 병을 딛고 일어난 탁월한 농구 실력의 소유자



**주라브(Зураб)** : 대표팀의 분위기 메이커



**이반(Иван)** : 완벽한 어시스트를 선보이는 대표팀의 가드



## 인상 깊은 장면

미국과의 친선경기에서 이긴 후 입원해 있는 알렉스의 병실 앞에 찾아 온 동료들. 서로의 끈끈함과 동료애가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다.



## 인상 깊은 장면

소련에서만 훈련하던 선수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입성한 장면. 낯설지만 새로운 미국이라는 땅을 밟은 선수들은 잔뜩 기대에 부푼다.



## 명대사



이제 알았어.  
살아있는 한 우린 뭐든 할 수 있어.



## 명대사



3분 뒤에 죽는다면 뭘 할 거야?  
3초라면...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 17 혜정, 느낀 점

MOVIE	BOOK	MUSIC	CONCERT
DATE 20			
TITLE 쓰리세컨즈 <i>Движение Вверх</i> (2019)			
GRADE ☆☆☆☆☆		TIME	
REVIEW "믿기지 않는 결승의 순간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민족과 사상이 모여 결국에는 '소련'이라는 한 팀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갔다는 점이 인상깊어요. 결승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그 갈등이 해소되며 생기는 선수들의 연대감이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 19 정현, 느낀 점

MOVIE	BOOK	MUSIC	CONCERT
DATE 20			
TITLE 쓰리세컨즈 <i>Движение Вверх</i> (2019)			
GRADE ☆☆☆☆☆		TIME	
REVIEW "영화 속 여러 스토리들은 잔잔하면서도 감동적, 예측 불가능한 하나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함이 매력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선수들을 이끄는 감독과 선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영화예요."			

### #아이스 홍보 카드 제작

• 영화 <아이스> •

# 러시아

RUSSIA

# 영화추천

◦ 소개 ◦

## 아이스(Ice)

**개봉:** 2019(한국기준)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드라마, 멜로/로맨스

**러닝타임:** 90분

**평점:** 9.05



◦ 줄거리 ◦



구부정하고 휘어진 다리로 피겨요정을 꿈꾸던 어린 나디아는 호랑이 코치 사탈리나에게 극강의 훈련을 받아 피겨스케이팅 정상에 오른다. 그러나, 최고 권위의 피겨스케이팅 대회 진출을 앞두고 심각한 부상으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며 다시는 빙판 위에 설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좌절감에 빠진 나디아에게 사탈리나 코치는 재할파트너로 뜰까출만 아이스하키선수 사샤를 옆에 붙여주게 되는데... 아슬아슬 빙판 위 달콤살벌한 피겨스케이팅 커플 탄생일까?

◦ 등장인물 ◦

나디아 역 - 아글라야 타라소바



피겨스케이팅 스타로 그 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성, 의지하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강박증에 시달리고 부상으로 휠체어까지 타게 되었지만 사샤와 함께 재활을 함으로써 성장해가는 인물

◦ 등장인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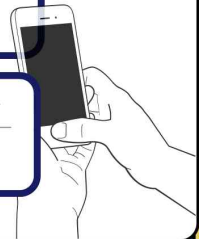
사샤 역 - 알렉산더 페트로브



3부 리그 아이스 하키 선수로 하키에 소질이 없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남자, 그러나 속은 따뜻해 '나디아'에게 계속해서 다가가 그녀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

◦ 한줄평 ◦

- HW\*\*\*\* 평점 ★★★★★  
가슴 따뜻해지고 유쾌한 로맨틱 상처 치유 영화
- BS\*\*\*\* 평점 ★★★★★  
러시아 대중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 JS\*\*\*\* 평점 ★★★★★  
파트너와의 사랑, 코치의 사랑 그리고 엄마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담겨있음



◦ 명대사 ◦



- Я же упала.  
- ну и что, все падают.  
- Видишь? Каждый может упасть.

◦ 명대사 ◦



**전 행복해지고 싶어요.**  
**Я счастливым хочу быть.**

◦ OST ◦



#2 'Do Like Me'(Делай как я)



- '사샤'가 '나디아'의 재활을 돕는 장면에 쓰인 곡으로 경쾌한 리듬이 인상적.  
- '사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가사와 독특한 연출

◦ OST ◦



#5 'Fly'(Лететь)



- 록 그룹 '아메가'의 'fly'가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감동의 떼창송으로 재탄생 하며 가슴 뭉클하고 벅찬 장면 연출

## 2021년 2학기 소모임 3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хорошо	지도교수	이 희 원 (인)
일시	2021.11.10. (수)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자	고민지, 한규리, 노은균, 김규민, 김다솔		
3회차 목표	영화 <메트로:마지막 탈출> 감상 후 토론, 홍보 카드 뉴스 제작		
내용 및 과정	<p style="text-align: center;">영화 &lt;메트로:마지막 탈출&gt; 감상 후 토론을 통해 홍보 카드 뉴스 제작</p> <p style="text-align: center;">카드 뉴스는 김규민, 김다솔 학우가 제작하기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인공 파악</p> <p style="text-align: center;">-안드레이: 부성애, 정의로움</p> <p style="text-align: center;">-콘스탄틴노프: 내연남, 사회적 지위와 부가 높음.</p> <p style="text-align: center;">-이리나: 사고 과정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낌.</p> <p style="text-align: center;">#명대사 공유</p> <p style="text-align: center;">-Давайте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м жить.</p> <p style="text-align: center;">-Я не могу быть здесь!</p> <p style="text-align: center;">-Пожалуйста, вернись живым.</p> <p style="text-align: center;">#관전 포인트</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인공이 지하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p> <p style="text-align: center;">-사고 전후의 주인공들의 가치관의 변화는?</p> <p style="text-align: center;">-극한 상황에서의 부성애는 어떤 힘을 가지는지?</p>		
자체평가	부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많이 내주어 카드 뉴스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되었음.		
다음모임 계획	다음 활동에서는 소모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정, 계획할 예정.		

소모임명	хорошо	지도교수	이 희 원 (인)
3회차 사진 및 결과물			

#<메트로:마지막탈출> 홍보 카드 제작



**“ДАВАЙТЕ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М ЖИТЬ.**

“우리 꼭 살아 나가자”

- 안드레이 (SERGEY PUSKEPALIES)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유능한 외과의사  
하지만 집안 사정은 그리 좋지 못하다

- 엄청난 부성애, 정의로움



**“Я НЕ МОГУ БЫТЬ ЗДЕСЬ!”**  
“난 여기 있으면 안돼!”

- 콘스탄티노프 (Anatoliy Belyy)
- 세르게이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내연남
- 사회적 지위와 부가 높음



**“ПОЖАЛУЙСТА, ВЕРНИСЬ ЖИВЫМ.”**  
“제발 살아서 돌아와줘”

- 이리나 (Svetlana Viktorovna Khodchenkova)

- 세르게이의 아내
- 남편과 아이에게 소홀히 하며 내연남과 바람을 피움
- 사고과정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낌



**메트로 - 마지막 탈출의 관전 포인트**

과연 이 주인공들은 이 지하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살아나왔을 때, 주연들의 사고 전후의 가치관과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극한 상황에서 부성애는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 2021년 2학기 소모임 4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хорошо	지도교수	이 희 원 (인)
일시	2021.11.16. (화)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자	고민지, 노은균, 한규리		
4회차 목표	향후 소모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사항 회의 및 러시아 영화에 관한 간단한 소개		
내용 및 과정	<p style="text-align: center;"><b>#소모임 인원 변동이 생겨 다시 한번 소모임 운영 및 방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함</b></p> <p>코로나19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 회의 줌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함. 자기 소개를 진행하고 소모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함. 향후 활동 방식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이후 진행되는 활동은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러시아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개인의 감상평을 공유하며 영화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형식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임.</p> <p>함께 시청하고 논의할 러시아 영화 첫 번째는 알렉산드르 바라노프의 &lt;바보들의 거짓말&gt;로 선정함. 함께 영화를 간략하게 시청하고, 영화에 대한 소개를 각자 조사해오도록 함.</p>		
자체평가	부원들 간 쉽게 친해져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쉽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함.		
다음모임 계획	다음 활동에서는 영화 <바보들의 거짓말>에 대한 기본적인 영화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의 감상평을 공유할 계획임.		

소모임명	хорошо	지도교수	이 희 원 (인)
------	--------	------	-----------

4회차 사진 및 결과물



## 바보들의 거짓말

Den duraka , Fools Day, 2014

개요 코미디 | 러시아 연방 | 87분

감독 알렉산드르 바라노프

출연 알렉세이 베소울킨, 알렉산더 리코프, 안토니나 디비나 더보기 >

기대지수 ?  2  0

3



주요정보	배우/제작진	포토	평점	리뷰	명대사/연관영화
------	--------	----	----	----	----------

### 줄거리

러시아 사회를 재치있게 풍자한 유쾌한 코미디! 액션과 수사를 넘나드는 즐거운 '버디 무비'

고급호텔 도어맨으로 일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이반 이바노프. 자기 사진을 유명인가 합성하는 취미를 즐기며 긍정적으로 사는 그는, 모스크바에 상경하면서 대출한 돈을 갚지 못해 차를 집 삼아 지내는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빚을 갚으러 찾아온 세르게이 세르게이치라는 수금업자의 협박에 못 이겨 농장을 경영하는 아버지를 찾아 세르게이치와 함께 귀향길에 오른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지역 시장 미하일 마코프의 딸 마샤가 그들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난다. 상대가 시장의 딸인 탓에 사고 책임을 물게 된 이반과 세르게이치. 정부에서 곧 기습 감사단을 보낼 거라는 정보를 입수한 시장과 지역 공무원들은 그동안 거액을 횡령해 온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온갖 절도 혐의까지 뒤집어씌우려 한다. 그런데 마침 이반의 차에서 그가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선 사진이 발견되고, 이반과 세르게이치를 감사관이라 생각하게 된 시장과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허둥지둥 두 사람을 대전한다. 부패한 러시아에 대한 유쾌한 풍자극! 이반과 세르게이치는 과연 이 엉뚱한 오해와 소동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 2021년 2학기 소모임 5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хорошо	지도교수	이 희 원 (인)
일시	2021.11.23. (화)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자	고민지, 노은균, 한규리		
2회차 목표	영화 <바보들의 거짓말> 이해, 개인 감상평 공유, 영화에 대한 토의		
내용 및 과정	<p>코로나19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 회의 줌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함. 지난 소모임 활동에서 선정한 알렉산드르 바라노프의 &lt;바보들의 거짓말&gt; 영화를 시청하고 영화에 대한 소개를 진행함. 해당 영화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와 줄거리를 요약함. 개인의 감상평을 부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또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 하며 영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이 영화는 과거 고골의 문학작품 &lt;검찰관&gt;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로, 현대 러시아 사회의 고위관직의 부정부패를 풍자하는 스토리를 함의하고 있음을 알게됨. 이러한 시사점을 극명히 보여주는 영화 속 장면 일부분을 함께 다시 시청함으로써 영화의 주제의식을 효율적으로 파악함.</p> <p>이후 &lt;바보들의 거짓말&gt; 영화와 러시아 영화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고자 이에 관한 회의를 진행함. 각 개인의 자료 조사에 대한 역할 분담을 진행함.</p>		
자체평가	부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함, 서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활동에 임하여 배려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전개해나감.		
다음모임 계획	다음 활동에서는 카드 뉴스 제작과 영화에 대한 소개글을 작성할 계획임.		

소모임명	хорошо	지도교수	이 희 원 (인)
------	--------	------	-----------

5회차 사진 및 결과물





## 2021년 2학기 소모임 활동 후기

소모임명	хорошо	지도교수	이희원 (인)
고민지	<p>영화라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 러시아 사회를 바라봄으로써 영화가 제시하는 사회학, 러시아 문화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알아볼 수 있던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부원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모임 활동은 러시아의 사회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p>		
노은균	<p>예전부터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영화 관련 활동을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에 이번 소모임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내가 여태 봐왔던 영화들은 대부분 미국 아니면 한국 영화였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영화였다. 평소에는 절대 볼 일이 없을 것만 같던 러시아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여태 봐 온 다른 영화들처럼 가볍게 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멀게만 느껴졌던 러시아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다.</p>		
한규리	<p>러시아 영화를 통해 부담없고 쉽게 러시아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바보들의 거짓말'이라는 러시아 영화를 감상하며 러시아의 문화, 러시아의 건축물, 등장인물을 통해 러시아인의 사상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영화의 대사를 한국어로 번역해보는 활동을 하며 러시아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p>		

## 2021학년도 2학기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소모임 운영계획서

<b>소모임명</b>	<b>вечерняя газета</b>	<b>지도교수</b>	한 만 춘 (인)	
<b>분야 및 주제</b>	러시아어권 외교 이슈 토론			
<b>소모임 소개</b>	러시아, 중앙아시아 외교 이슈 토론			
<b>목표 및 필요성</b>	1.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정세를 심층적으로 탐구			
	2.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흥미 유발			
	3. 학우들과의 토론을 통한 다양한 견해 수용			
<b>기대효과</b>	학생들의 러시아어권지역 탐구에 흥미유발			
<b>운영 방법 및 내용</b>	<b>운영 방법</b>	온라인 GoogleMeet로 진행		
	<b>운영내용</b>	주제를 번갈아가며 정함. 주제를 정한 학우가 대표로 발표 후 나머지 학우들의 생각을 공유, 토론.		
	<b>장소</b>	온라인 GoogleMeet		
<b>참고도서</b>				
<b>기타사항</b>				
<b>참여 학생</b>	<b>학번</b>	<b>이름</b>	<b>연락처</b>	<b>비고(팀내 역할)</b>
	201620233	박선화		팀장
	201620230	박범수		부팀장
	201820110	전경미		팀원
	202120006	고민지		팀원
	202120051	문하윤		팀원

■ 소모임 대표

소모임명	вечерняя газета				
대 학	글로벌인문학부대학	학 과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학 년	4
성 명	박선화	학 번	201620233		
주 소					
거 주 지					
연락처					

■ 회원명단

일련 번호	학과	학년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1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4	201620233	박선화		팀장
2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4	201620230	박범수		부팀장
3	글로벌지역학부	3	201820110	전경미		팀원
4	글로벌지역학부	1	202120006	고민지		팀원
5	글로벌지역학부	1	202120051	문하윤		팀원

■ 2021학년도 2학기 <вечерняя газета> 소모임 활동 계획서

모임 및 행사명	일 시	장 소	모임(행사)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OT	11/1	온라인	모임 시간 및 주제 결정
토론 진행	11/8	온라인	주제에 대한 토론 진행
토론 진행	11/15	온라인	주제에 대한 토론 진행
토론 진행	11/22	온라인	주제에 대한 토론 진행
토론 진행	11/29	온라인	주제에 대한 토론 진행

## 2021년 2학기 소모임 1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вечерняя газета	지도교수	한 만 춘 (인)
일시	11월 1일	장소	온라인 GoogleMeet
참석자	참여자 전원 (고민지, 문하윤, 박범수, 박선화, 전경미)		
1회차 목표	모임 시간 결정, 주제 결정		
내용 및 과정	<p>구글미트로 회의</p> <p>자기소개 후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돌아가며 발언함</p> <p>관심있는 주제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입장</li> <li>2. 노르트 스트림</li> <li>3. 코이카의 중앙아시아 5대 중점프로젝트</li> <li>4. 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의료산업</li> </ol> <p>이 나왔음</p> <p>11/3(수)에 투표 후 첫 번째 주제를 결정하기로 함.</p> <p>앞으로 소모임 활동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함.</p>		
자체평가	<p>소모임 참여 학우들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흥미가 엇보임.</p> <p>따라서 다음 소모임 때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견 공유가 가능할 듯 보임</p> <p>주제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한 학우가 있으나 추후 주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고려해도 될 듯 함.</p>		
다음모임 계획	11/8(월) 오후 7시 온라인 구글미트를 통해 소모임을 할 예정		

소모임명	вечерняя газета	지도교수	한 만 춘 (인)
------	-----------------	------	-----------

**1회차 사진 및 결과물**

운영 계획서 첨부

## 2021년 2학기 소모임 2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вечерняя газета	지도교수	한 만 춘 (인)
일시	2021. 11. 08	장소	온라인 구글 미트
참석자	고민지, 문하윤, 박범수, 박선화, 전경미		
2회차 목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공부하고 탈레반이 장악하게 된 계기를 알아본다. 러시아, 미국,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정부들의 입장을 파악하며 우리나라가 향후 대처해야할 전망에 대해 논의해본다.		
내용 및 과정	<p>-박범수 학우가 PPT를 준비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 탈레반이 장악하게 된 계기, 현재 상황에 대해 발표 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질문함.</p> <p>질문1. 왜 파슈툰 민족이 국가가 아닌 민족적 공동체가 강한지? (박선화)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에 근간한 국가이다. 파슈툰족 또한 국가에 속해있는 한 부족이다. 이런 부족 공동체의 정체성에 더욱 근간을 이룬다. 이런 경우 종교적 우월주의가 심하다. 따라서 타슈툰 족에서 뿌리를 타고 나온 탈레반이라는 집단 또한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된 것이고 종교적 우월주의가 극단적이며 이슬람의 지하드 전쟁을 벌임. 우월주의+종교적 배타성이 결합되어 파슈툰 족이 그런 성향이 강하다. (고민지)</p> <p>질문2. 지하드가 뭔가? (전경미)          종교적 지향점이다. 행동을 규율한 것. 탈레반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가진 지하드는 굉장히 극단적이다. 경전에 나온 것을 직접 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집단으로 종교가 사고를 막았다고 생각한다. 인간적인 행동을 지키지 않고 그저 지하드에 나와 있다면 무조건 지키는 집단이 탈레반이며 그들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 (박범수)</p> <p>질문3.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용하려 했으나 무산되었고 특별공로자 391명만 받아들임. 그 당시 국민 여론은 좋지 않음. 국민청원에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청원이 올라왔고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함. 이러한 상황에서 학우들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이 이들을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박선화)          -한국 전쟁 당시 그 어느 나라보다 이타적 수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난민에 대해 너무 배타적으로 보는 것 같다. 글로벌한 사회에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박선화)          -조심스러운 자세이지만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한국도 도움을 받았고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선진국의 영향을 보여줘야 한다. 독일의 경우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일 때 테러리스트가 숨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확한 신원과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야하며, 유예기간과 관찰 기한을 뒤서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박범수)          -박범수학우와 비슷한 의견이다. 무슬림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조심스러운 주제이다. 선뜻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말되 신원 파악하고 난민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 무슬림과 이슬람의 지향점이 한국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민 수용 전에 받아들일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난민 수용 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p>		

	<p>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난민 수용을 선뜻 하기에 앞서 준비된 자세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문하윤)</p> <p>질문4.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국가로 봐야할지? (박선화)</p> <p>-러시아, 중국, 미국이 국가로 대하고 있으니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급하게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선 안 된다. 수출과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강대국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정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늦게 정해서도 안 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를 보다 늦게 발을 들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작아진 것처럼, 너무 늦게 정했을 때 오는 손해가 있으니, 적절한 타이밍에 입장을 정해야 한다. (박선화)</p> <p>-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지도권을 뺏어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실질적 지배를 탈레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 외교는 뒷 문제이기 때문에 달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로 그들을 이끌어 내는게 그들을 극단주의에서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다. (박범수)</p> <p>질문5. 미국이 탈레반에서 철수한 것은 잘한 행동인가? 너무 이르지 않았나? (박선화)</p> <p>-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탈레반은 테러집단이고, 그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뭐든 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성급한 결단을 내렸을 때 탈레반의 입장에서는 심기를 건들었다 생각하여 미국이 했던 행동은 성급했다. (문하윤)</p> <p>-성급하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고,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로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주변국의 정책과 안보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예측불가능하게 철군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고민지)</p> <p>-미국이 2001년 전쟁 발발하여 점령한 기간은 19년이다.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막대한 돈과 인력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자립하지 못했다. 엄마가 언제까지나 우리를 돌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도 독립해야 할 때가 됐다. 언제까지나 원조를 받을 수는 없다. 원조만 받고 지내다보면 결국 점점 더 큰 것을 바랄 것이다. 정말 감당 불가능한 상황에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전에 발을 뺀 것이 나은 결정이라 생각한다.</p>
<p><b>자체평가</b></p>	<p>-공식 첫 토론 시간임에도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함.</p> <p>-전경미의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웠음. 다음 주차 땀 고쳐오기로 함.</p> <p>-다음 주차에 주제를 정해서 2명이 발표하기로 했음.</p>
<p><b>다음모임 계획</b></p>	<p>-주제 1. 북극항로 2. 중앙아시아에 대한 코이카의 사업 3. 노르드 스트림 중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음.</p> <p>투표 결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코이카의 사업이 정해졌음.</p>



소모임명	вечерняя газета	지도교수	한 만 춘 (인)
------	-----------------	------	-----------

2회차 사진 및 결과물

The screenshot displays a Zoom meeting interface. On the left, a PowerPoint presentation is shown with the title "5-3. 새로운 질서" (5-3. New Order). The slide content includes:

-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북태평양 지역의 중앙아시아 진출 통해 제한 공화국 통치시 연방내 이슬람 분리주의와 연계가능성에 촉각
- 중남아시아**: 주력 아슬라프 정권내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주의의 연계 우려
- 중국**: 아프가니스탄 내 북부군 독립 운동세력이 신장지역 탈구축을 연계 분리 독립 운동에 나설 것을 우려
- 인도**: 아프가니스탄 내 북부군 독립 운동세력이 신장지역 탈구축을 연계 따라 탈레반과의 교감 확대를 시도 중
-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지역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에 반대하지 않기에 무리와 영항력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 존재

On the right side of the Zoom window, there is a grid of video thumbnails for participants: 박범수, 전경미, 고민지, 허윤, and another 박범수 (with a blue '범수' name tag). A large blue '범수' name tag is also visible in the bottom center of the grid.

\*발표 PPT 따로 첨부했습니다.



### 목차

1. 아프가니스탄
2. 파슈툰족과 듀랜드 라인
3. 탈레반과 테러와의 전쟁
4. 미군 철수
5. 내전과 주변국들
6. 질문



### 1-1. 국가 소개



- 수도: 카불
- 면적: 652,864 제곱 킬로미터
- 언어: 다리어, 파슈투어
- 인구: 37,132,065명
- 국교: 이슬람

### 1-2. 민족 구성



### 2-1. 파슈툰족



### 2-2. 그레이트 게임



### 2-3. 듀랜드 라인



### 2-4. 소련의 아프간 침공



### 3. 탈레반

### 3-1. 탈레반이란?



### 3-2. 9.11 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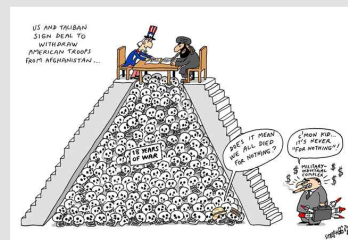


### 3-3. 미국-아프간 전쟁



### 4. 미군 철수

### 4-1. 철수의 배경



4-2. 철수 이후의 아프간



5. 내전과 주변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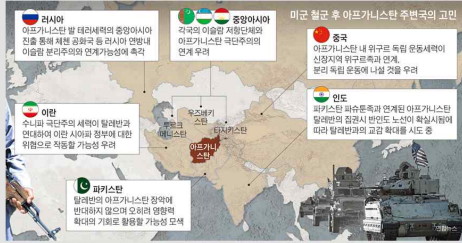
5-1. 반탈레반 전선



5-2. IS-K



5-3. 새로운 질서



6. 질문

자료 출처

- [http://www.kobco.co.kr/news/3011101/news/014\\_20210705-2101262121010101](http://www.kobco.co.kr/news/3011101/news/014_20210705-2101262121010101)
- [https://www.kobco.co.kr/news/014\\_20210705-2101262121010101](https://www.kobco.co.kr/news/014_20210705-2101262121010101)
- [https://www.kobco.co.kr/news/014\\_20210705-2101262121010101](https://www.kobco.co.kr/news/014_20210705-2101262121010101)
-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afghanistan/2021/06/17/afghanistan-war>
- <https://www.afghanreporter.com/News/2021/06/17/afghanistan-war>
- <https://www.afghanreporter.com/News/2021/06/17/afghanistan-war>
- <https://www.afghanreporter.com/News/2021/06/17/afghanistan-war>
- <https://www.afghanreporter.com/News/2021/06/17/afghanistan-war>
- <https://www.afghanreporter.com/News/2021/06/17/afghanistan-war>
- <https://www.afghanreporter.com/News/2021/06/17/afghanistan-war>

## 2021년 2학기 소모임 3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вечерняя газета	지도교수	한 만 춘 (인)
일시	2021. 11. 22	장소	온라인 구글 미트
참석자	고민지, 문하윤, 박범수, 박선화, 전경미		
3회차 목표	코이카의 대 중앙아시아 프로젝트 연구		
내용 및 과정	<p>문하윤 학우가 PPT를 준비하여 발표</p> <p>&lt;발표 내용&gt;          코이카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줄임말로 대한민국 무상 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의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는 1991년 4월 설립. 최근 KOICA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되고 지원 금액도 증가하면서, KOICA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점점 더 증가. KOIC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빈곤 감소, 인권 및 성평등 실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글로벌 연수, 해외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코이카는 현재 중앙아시아 중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3개의 국가에서 프로젝트형 사업을 진행 중임.</p> <p>2020 프로젝트에는 행정정보공유체계 , 역량개발 등 7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2021 프로젝트에는 KOICA의 인재양성사업 ,국별협력사업, 글로벌연수사업 등 진행하며 특히 중앙아시아에는 컨설팅과 현지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처럼 협력 중심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를 10개 정도를 진행 중임.</p> <p>키르기스스탄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의 구축 사례를 발표하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2017년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주민카드를 처음 수출하면서 키르기스스탄 신분체계 확립 및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 키르기스스탄은 전자정부 도입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부패척결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키르기스스탄은 전자정부를 도입하기 위해 IT 기술, 전자정부 운영 경험,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고려. 또한 전자정부와 소프트웨어 발전을 토대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전자주민카드 도입 프로젝트는 키르기스스탄 측에서도 성공적인 협력사업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 사업들이 키르기스스탄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강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p> <p>키르기스스탄의 유기농업 정책과 이행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키르기스스탄이 유기농 인증 제도를 만들고 유기농업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유기농업 인프라 확대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수출시장의 유통지를 확대시키는 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다. 유기농업은 사업 대상지 내 유기농업을 실시하는 농경지 면적이 증가하고 유기농업 시행령을 수립하여 전문가들을 양성시킬 수 있다.</p>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ODA에서 14위를 기록하였다. KOICA 프로젝트 이후 우즈베키스탄에는 교육과 공공행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문제는 취약한 보건, 의료환경이다. 우즈베크는 의료장비가 매우 부족하고 아동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코이카는 우즈베키스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주요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의료장비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진단키트나 진단장비 등 의료진단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 의료 프로젝트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감염병 프로젝트가 정확하여 확실하게 진단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의료 역량 강화 이상으로 도움이 되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한 코이카 의료 프로젝트가 높은 성과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하여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기초의료체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개발협력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주요 개발협력 대상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주변 국가에 비해 WTO의 가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산업화 시키며 다방면으로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중 우즈베키스탄이 협력의 핵심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직업 훈련 제도 역량 지원 프로젝트는 우르겐치 직업 훈련원을 건립하기 위한 기초이다. 우르겐치 훈련원을 건립하고 교육 연수센터를 포함시켜 훈련 교사들을 양성시키며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경제 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의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 권한을 증진시키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의 효과는 제한적인 여성 경제의 자립과 여성의 창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자주민카드 도입 사업, 선거역량 강화사업 등 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 또한 키르기스스탄 측에서도 성공적인 협력사업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 사업들이 키르기스스탄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강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국가이다.

KOICA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은 각국 정부와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하는 일을 직접 지원하거나,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는 향후 협력이 보다 확대 강화될 예정이다.

박범수: 코이카의 꿈 프로그램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코이카를 알게 되었다. 해외에 자원봉사만 가는 단체인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 큰 의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전공 학생들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로 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라 생각한다.

박선화: 코이카만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건 좋으면서도 불안한 것이다. 너무 코이카에만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DCF와 같은 단체도 있긴 하나, 이런 단체는 적고, 너무 소수의 인원만 고용된다. 취업에 실패시 현실적으로 다른 기업으로도 눈을 돌려야하기 때문에 코이카를 준비하며 다른 기업도 함께 준비하길 바란다.

<p><b>자체평가</b></p>	<p>코이카라는 단체는 익숙하면서도 어려운 단체이다. .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없다.</p>
<p><b>다음모임 계획</b></p>	<p>다음 모임은 2021년 12월 27일 오후 7시 예정입니다.          시험기간이 끝난 후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의 주제는 '고려인'입니다,</p>

## 중앙아시아 KOICA 프로젝트 사업

2021200510글로벌지역학부 문하운

### CONTENTS

- KOICA란?
- KOICA 중앙아시아 프로젝트
- 질의응답

외교이슈 3주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우리나라의 대외무상원조 전달 기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 KOICA 프로젝트

- 2020 프로젝트 중앙아시아 7건
- 2021 프로젝트 중앙아시아 10건
- KOICA의 인재양성사업, 국별협력사업, 글로벌연수사업 등 진행  
→ 컨설팅으로 현지 전문가 파견, 조차청연수 (협력 중심 사업)

### 키르기스스탄 전자정부 구축, 정부 행정 시스템 개선



**KOMSCO 수출액 추이**

Year	Revenue (Million USD)
2015	265
2016	329
2017 (목표)	513

전자정부 → 소프트웨어, 제도 구축에 특화  
(IT 기술, 전자정부 운영 경험, 공공서비스 효율화)



## 키르기스스탄 전자정부 구축, 00000000 정부 행정 시스템 개선

### 소프트웨어 활용

→) 전자정부 구축사례 발표, 전자주민시스템 소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도입

### 전자주민카드 발급

→) 신분체계 확립 및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

### 키르기스스탄 전자정부 도입

→) 지하경제 양성화, 미세수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부패척결 등을 목표

## 키르기스스탄 유기농업 정책

유기농 인증제도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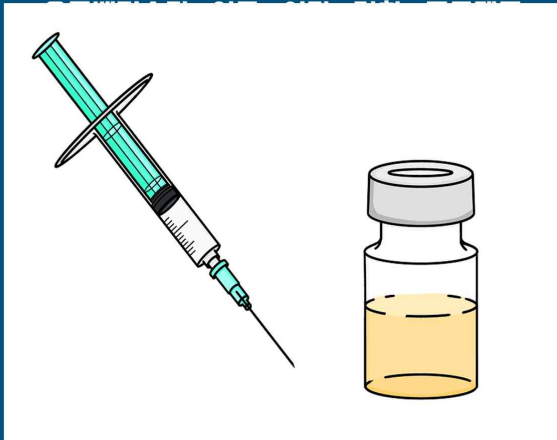
유기농업 인프라 확대

유기농 전문가 양성

→) 유기농업 시행령 수립

→) 사업 대상지 내 농경지 면적 증가

→) 유기농업 전문가 수 증가



## 우즈베키스탄 직업 훈련 제도 역량 지원

- 자격검정제도 구축 →) 훈련기준, 출제기준
- 교사 연구센터 건립 →)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
- 우르겐치 직업훈련원 건립 →) 근로자 양성(취업률) 0

## 아프가니스탄 여성 경제 역량강화

● 정책 환경 →) 여성인권 향상, 여성경제권한 강화

● 여성경제 자립, 여성 창업 활성화 →) 아프가니스탄 여성  
권한 증진, 정책 수립 토대 마련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 KOICA 공식 블로그

● KOICA

● EDCF 공식 블로그

## 2021년 2학기 소모임 활동 후기

소모임명	вечерняя газета	지도교수	한 만 춘 (인)
고민지	<p>평소 러시아 사회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기회가 적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외교 이슈 소모임 활동을 통해 러시아와 CIS 국가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어권지역의 사회, 외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p>		
문하윤	<p>러시아지역학권 학생으로서 러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학습할 수 있었다. 발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자료를 통해 발표를 진행하고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파악하지 못 한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 러시아 이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글로벌적인 견해를 넓힐 수 있었다.</p>		
박범수	<p>외교 소모임은 짧지만 매우 좋은경험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진행되는 모임이었지만 다들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으며 매번 좋은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러시아어권 사회에 대한 여러 강의는 단순히 듣는 것에 국한되었지만 소모임은 능동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의견을 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의견을 주고 받으며 서로 알지 못한 부분을 공유하거나 관심에서 벗어난 분야도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 주장의 장점과 단점, 보완할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교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한 폭 넓은 사고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 글로벌지역학부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p>		
박선화	<p>동아리원들과 토론을 진행하여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다양한 입장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동아리 모임을 하며 뉴스를 더 자세히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p>		
전경미	<p>외교 이슈 소모임을 통해 여러 외교 이슈에 대해 토론하면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각자 자료 조사하고 공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각 주제에 따른 외교 이슈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p>		

## 2021학년도 2학기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소모임 운영계획서

<b>소모임명</b>	<b>От А до Я</b>		<b>지도교수</b>	1팀	백 준 현 (인)
				2팀	최 종 술 (인)
<b>분야 및 주제</b>	러시아어 동화책 제작				
<b>소모임 소개</b>	유아용 동화책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동화책 제작 / 러시아어 흥미 유발				
<b>목표 및 필요성</b>	1. 글로벌지역학부와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학우들과 소통, 교류하기 위함				
	2. 다양한 학우들에게 러시아어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함				
	3. 러시아어 학습적 발전 위함 (문화, 문어체 등)				
	4. 러시아어에 대한 관심 도모				
<b>기대효과</b>	글로벌지역학부 학생들에게 러시아어에 대한 흥미 유발과 러시아어 학습 증진				
<b>운영 방법 및 내용</b>	<b>운영 방법</b>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			
	<b>운영내용</b>	-1팀, 2팀 서로 나누어서 팀별로 동화책 제작 진행 -팀별 대면으로 만나 회의와 동화책 제작 진행 후 시간대 별로 맞추어서 온라인도 병행할 예정			
	<b>장소</b>	온라인: GoogleMeet / 오프라인: 송백관 403호			
<b>참고도서</b>					
<b>기타사항</b>					
<b>참여 학생</b>	<b>학번</b>	<b>이름</b>	<b>연락처</b>	<b>비고(팀내 역할)</b>	
	201620232	박선우		전체 팀장 및 2팀 부원	
	201620251	이지훈		2팀 팀장	
	201720007	권혜정		1팀 팀장	
	201820110	전경미		2팀 부원	
	202120009	권민서		2팀 부원	
	202120154	허민주통일		2팀 부원	
	201621416	김민지		1팀 부원	
	202020103	이은미		1팀 부원	
	202120006	고민지		1팀 부원	
202120051	문하윤		1팀 부원		

■ 소모임 대표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대 학	글로벌인문학부대학	학 과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학 년	4
성 명	박선우	학 번	201620232		
주 소					
거 주 지					
연락처					

■ 회원명단

일련 번호	학과	학년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1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4	201620232	박선우		전체 팀장 및 2팀 부원
2	글로벌지역학부	3	201620251	이지훈		2팀 팀장
3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4	201720007	권혜정		1팀 팀장
4	글로벌지역학부	3	201820110	전경미		2팀 부원
5	글로벌지역학부	1	202120009	권민서		2팀 부원
6	글로벌지역학부	1	202120154	허민주통일		2팀 부원
7	글로벌지역학부	3	201621416	김민지		1팀 부원
8	글로벌지역학부	2	202020103	이은미		1팀 부원
9	글로벌지역학부	1	202120006	고민지		1팀 부원
10	글로벌지역학부	1	202120051	문하윤		1팀 부원

■ 2021학년도 2학기 <От А до Я> 소모임 활동 계획서

모임 및 행사 명	일 시	장 소	모임 ( 행사 ) 주 요 내 용 및 참 고 사 항
OT	11/2	온라인	제작 과정 설명 및 팀별 역할 분담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회의 진행
이후 팀별 활동 계획			

## 2021년 2학기 소모임 1회차 활동보고서

<b>소모임명</b>	От А до Я	<b>지도교수</b>	백 준 현 / 최 종 술
<b>일시</b>	11월 2일	<b>장소</b>	온라인 : GoogleMeet
<b>참석자</b>	참여자 : 박선우, 이지훈, 권혜정, 전경미, 이은미, 허민주, 권민서, 문하윤, 고민지 # 김민지 회의 이후 소모임 추가자		
<b>1회차 목표</b>	러시아어 동화책 제작 과정 설명 및 팀별 역할 분담 정하기, 회의시간 결정		
<b>내용 및 과정</b>	<p>러시아어 동화책 제작 소모임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후 팀별로 인원분배 뒤 동화책 제작 회의 진행</p> <p>1,2팀장(현재 러시아어권지역학전공 재학생으로 선정)</p> <p>1팀 팀장 - 권혜정 / 1팀 팀원 (김민지, 이은미, 문하윤, 고민지)                  2팀 팀장 - 이지훈 / 2팀 팀원 (전경미, 권민서, 허민주)</p> <p>러시아어지역학전공 재학생들과 글로벌지역학부 인원들이 소모임을 참여하게 된 계기 및 목적 등 관련하여 발언 (참여자 모두가)</p> <p>이후 각 팀별로 따로 회의진행한 후 대면과 온라인이 가능한 시간대를 조정하여 회의시간 조정 완료. (다음모임 계획 참조)</p> <p>(1팀 팀장, 2팀 팀장 별도 진행)</p>		
<b>자체평가</b>	소모임 첫 모임에 모두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러시아어에 대한 흥미가 보여서 좋았음. 아직 러시아어를 모르는 학우가 많이 때문에 러시아어 동화책 제작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b>다음모임 계획</b>	1팀 : 11월 8일(월) 대면으로 만나 팀별 회의 진행 후 동화책 제작 예정 2팀 : 11월 10일(수) 대면으로 만나 팀별 회의 진행 후 동화책 제작 예정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 1팀	지도교수	
------	----------------	------	--

1회차 사진 및 결과물

\*운영 계획서 첨부

## 2021년 2학기 소모임 1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 1팀	지도교수	백 준 현 (인)
일시	2021. 11. 02. 화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참석자	고민지, 권혜정, 문하윤, 이은미		
1회차 목표	제작 동화책 선정 및 진행 과정 설명, 다음 회의시간 결정		
내용 및 과정	<p># 서로 인사를 나누는 후 번역 작업할 동화책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명씩 번역하고 싶은 작품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말함</li> <li>- 후보로 여러 전래동화와 한국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등 언급</li> <li>- 조원들의 투표로 '해님달님'이 선정됨</li> </ul> <p># 앞으로의 소모임 활동 진행 방법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 시간이 맞는 월요일 오후에 가능한 인원 대면으로 참석</li> <li>- 매주 스케줄 조정을 통해 다수가 모이지 못할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li> </ul>		
자체평가	<p>대면으로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 시간을 조정하여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 긍정적으로 생각함. 토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다만 한 분이 참여하지 못해 책을 선정할 때 즉각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듦. (후에 모든 상황과 당일 회의 내용은 모두 전달함.)</p>		
다음모임 계획	2021년 11월 10일 (월) 대면으로 회의 진행, 상명대학교 송백관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 1팀	지도교수	백 준 현 (인)
------	----------------	------	-----------

**1회차 사진 및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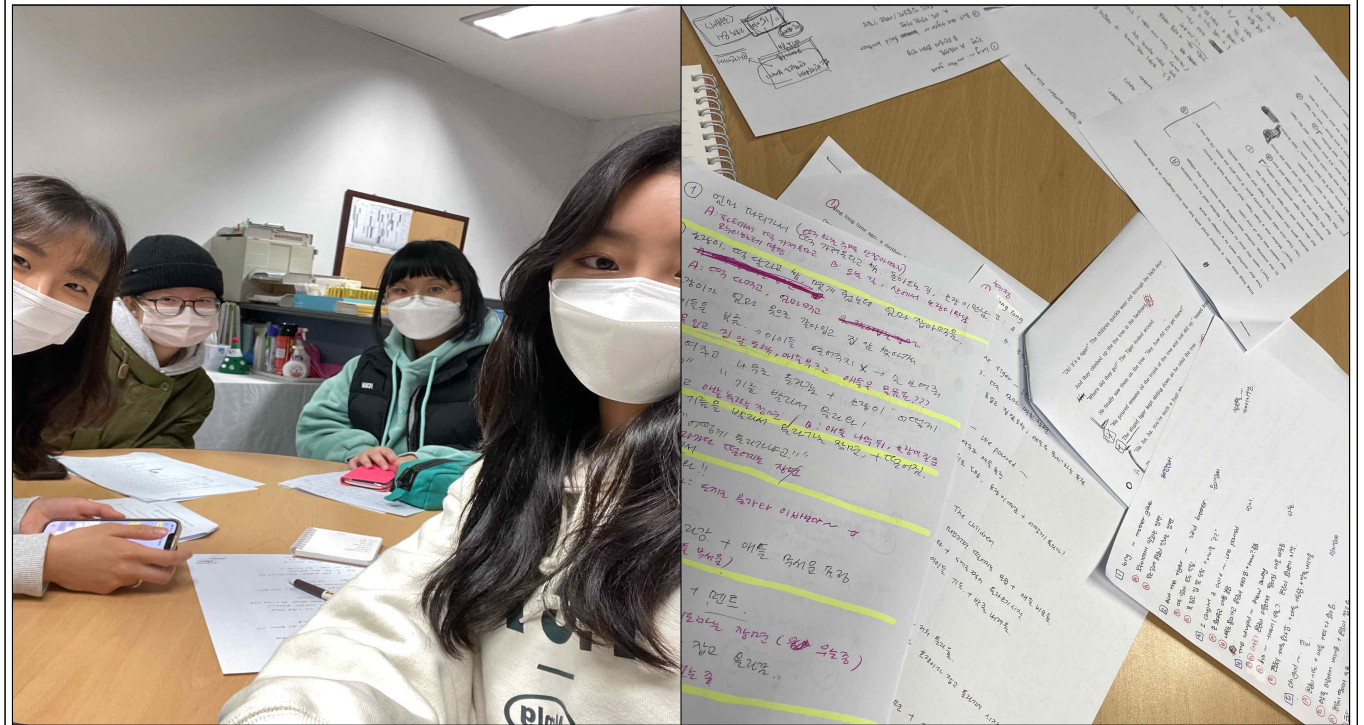
\*운영계획서 따로 첨부했습니다.

## 2021년 2학기 소모임 2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 1팀	지도교수	백준현 교수님 (인)
일시	2021. 11. 09. 화	장소	상명대학교 송백관 403호
참석자	고민지, 권혜정, 문하윤, 이은미		
2회차 목표	번역 파트 분배 및 삽화 내용 회의		
내용 및 과정	<p># 번역 파트 분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한 페이지에 들어갈 분량을 나눔.</li> <li>- 한 사람 당 번역하는 문장을 10문장 안팎으로 하게 함.</li> <li>- 일정한 파트를 1/2/3/4/5로 분배한 후 사다리타기 진행.</li> <li>- 각자 주어진 분량을 다음 주 모임까지 번역해 오기로 함.</li> </ul> <p># 삽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의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생각하여 각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토의함.</li> <li>- 팀원들의 회의를 통해 각 페이지에 맞는 삽화를 정해두었고, 이는 후에 해당 페이지를 맡은 팀원이 제작하기로 함.</li> </ul>		
자체평가	<p>각자 맡은 번역과 삽화의 분배가 깔끔하게 이루어짐. 삽화를 정하는 시간에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들은 많이 내 주어 진행이 순조로웠음. 반면에 개인적으로 찾아보았던 작품의 동영상 자료를 미리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아 초반에 시간이 소요됨.</p>		
다음모임 계획	<p>2021. 11. 15 (월) 저녁 9시 화상회의 (당일 모여 회의한 결과, 일주일간 번역한 내용을 함께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으로 모두 좁혀짐.)</p>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 1팀	지도교수	백준현 (인)
------	----------------	------	---------

2회차 사진 및 결과물



## 2021년 2학기 소모임 3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 1팀	지도교수	백준현 교수님 (인)
일시	2021. 11. 15. 화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참석자	고민지, 권혜정, 문하윤, 이은미		
3회차 목표	번역 점검 및 삽화 회의		
내용 및 과정	<p># 번역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 맡은 파트를 하나로 합쳐 Google Docs 작업을 함.</li> <li>- 문맥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실시간으로 수정함.</li> <li>- 개인적인 지식과 사전을 활용해도 번역이 힘든 부분을 따로 메모함.</li> </ul> <p># 삽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주 삽화 구성 때 빠진 표지 부분을 구성 회의를 진행함.</li> <li>- 상대적으로 적은 페이지를 그리는 팀원들이 표지와 책 구성에 시간 투자를 하기로 함</li> </ul> <p># 교수님 피드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요일 회의 때 진행한 번역문을 교수님께 보여드렸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심</li> </ul>		
자체평가	<p>실시간으로 번역 작업을 하다 보니 러시아어를 처음 배우거나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의 활발한 참여가 어려웠지만 번역 외에 삽화나 책 구성 회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함. 또한 팀원 모두가 주어진 파트 번역을 성실히 해 주어 작업을 진행할 때 지체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음.</p>		
다음모임 계획	<p>2021. 11. 22 (월) 오후 5시 화상회의</p> <p>(번역 작업이 끝나고 파트를 나누어 삽화를 그리기로 했기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지 않아도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함. 다음 주에는 동화책에 사용될 폰트나 페이지 구성 등을 회의할 예정)</p>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 1팀	지도교수	백준현 교수님 (인)
------	----------------	------	-------------

**3회차 사진 및 결과물**

<p style="font-size: 1.2em; margin-bottom: 10px;">mjmj9925@gmail.com님이 문서 1개를 공유함</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p>mjmj9925@gmail.com님이 다음 문서를 수정하도록 나를 초대했습니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span>동화책 소모임 -1</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4f81bd;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width: 30px; height: 30px; margin-bottom: 10px;"> <span style="font-size: 0.8em;">열기</span> </div> <p style="font-size: 0.8em; margin-top: 10px;">이 사용자로부터 파일을 받고 싶지 않다면 Drive에서 발신자를 차단하세요.</p>	<p>- Наконец он увидел их на дереве. "Эй, как ты туда попал?"</p> <p>"We poured sesame oil the trunk of the tree and just slid up." teased Brother.</p> <p>- "Мы облили кунжутным маслом ствол дерева и просто взбирали вверх", брат дразнил.</p> <p><b>4-AB: 호랑이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아이들은 비웃는 장면</b></p> <p>The stupid tiger kept sliding down as he oiled the tree.</p> <p>- Глупый тигр продолжал скользить вниз, смазывая дерево маслом.</p> <p>"Ha, ha, ha, you're such a fool!</p> <p>- Ха, ха, ха, ты словно дурак.</p> <p><b>4-A: 도끼로 올라와 보라고 말하고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장면</b></p> <p>"Why don't you use an ax?" shouted Sister.</p> <p>- "Почему бы ты не используешь топор?" громко закричала сестра.</p> <p>Then the Tiger climbed up the tree with an ax.</p> <p>- <b>Итак</b> Тигр поднялся на дерево с топором.</p>
--	---

## 2021년 2학기 소모임 4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 1팀	지도교수	백준현 교수님 (인)
일시	2021. 11. 22. 월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참석자	고민지, 권혜정, 김민지, 이은미		
4회차 목표	번역 피드백 및 삽화 구성 회의		
내용 및 과정	<p># 번역 피드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교수님께 받은 피드백 다 함께 확인</li> <li>- 문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삽화 완성 전까지 담당 교수님께 피드백 받을 예정</li> </ul> <p># 책 구성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 구성 가로/세로 토의</li> <li>- 각각의 장/단점을 말한 후 카카오톡 투표 실시</li> <li>- 각자 알아 온 폰트를 한 가지씩 적용해 본 후 투표 실시</li> </ul> <p># 삽화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삽화를 다 그린 친구들 피드백 진행</li> <li>- 삽화를 그릴 때 이야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색으로 칠해 미리 공간을 비워 두기로 함</li> </ul>		
자체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피드백 받은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사전에 미리 이루어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음.          각자 배정 받은 임무를 잘 수행하여 토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음. 다만 매주 결석자가 있어 회의 내용을 정리해 주지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주중에 한 번씩 더 공지해 줄 예정임.</p>		
다음모임 계획	<p>다음 주 중 1회 대면          (삽화는 30일까지 마감하기로 했고 해당 주에 대면으로 만나 삽화와 이야기 배치를 끝낼 예정)</p>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 1팀	지도교수	백준현 교수님 (인)
------	----------------	------	-------------

4회차 사진 및 결과물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소모임이은미

<https://us05web.zoom.us/j/85806211189?pwd=WXpNbkoYakVoTnQ1WHVFcStFd2d0QT09>

Join our Cloud HD Video Meeting

Zoom is the leader in modern enterpris...

us05web.zoom.us


Q. 폰트

(사진)

(사진)

(사진)

(사진)



투표하러가기 >

19:44

## 2021년 2학기 소모임 2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2팀	지도교수	최 종 술 (인)
일시	21.11.10 17:00~18:30	장소	송백관 403호
참석자	박선우, 이지훈, 전경미, 허민주, 권민서		
3회차 목표	동화책 선택 후 팀 내 역할분담 및 번역, 삽화 회의		
내용 및 과정	<p style="text-align: center;">러시아어로 번역할 동화책 선정                      팀원 전체 상의 후 (금도끼 은도끼로 결정)</p> <p style="text-align: center;">번역과 삽화 방식에 대한 회의 및 방법 결정 (참여자 모두)</p> <p style="text-align: center;">이지훈 : 번역 및 검수 도와주는 역할로 도움을 줄 예정                      박선우 : 동화책 번역, 삽화 제작 및 동화책 구성 예정                      전경미, 허민주, 권민서 : 동화책 번역, 삽화 제작</p> <p style="text-align: center;">구체적인 삽화 및 제작방법은 다음주 회의전까지                      비대면으로 공지하기로 결정</p> <p style="text-align: center;">다음회의도 대면으로 오늘과 같은 강의실에서 진행하기로 결정</p>		
자체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팀원들의 빠른 의견 제시와 수용을 통해 회의 안건들을 빠르게 정할 수 있었다.                      번역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지만,                      이지훈 팀장이 많이 도와줄 수 있어서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 같다.                      삽화 구성 및 제작은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임.</p>		
다음모임 계획	11월 17일(수) 대면으로 송백관 E403호 강의실에서 진행 예정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2팀	지도교수	최 종 술 (인)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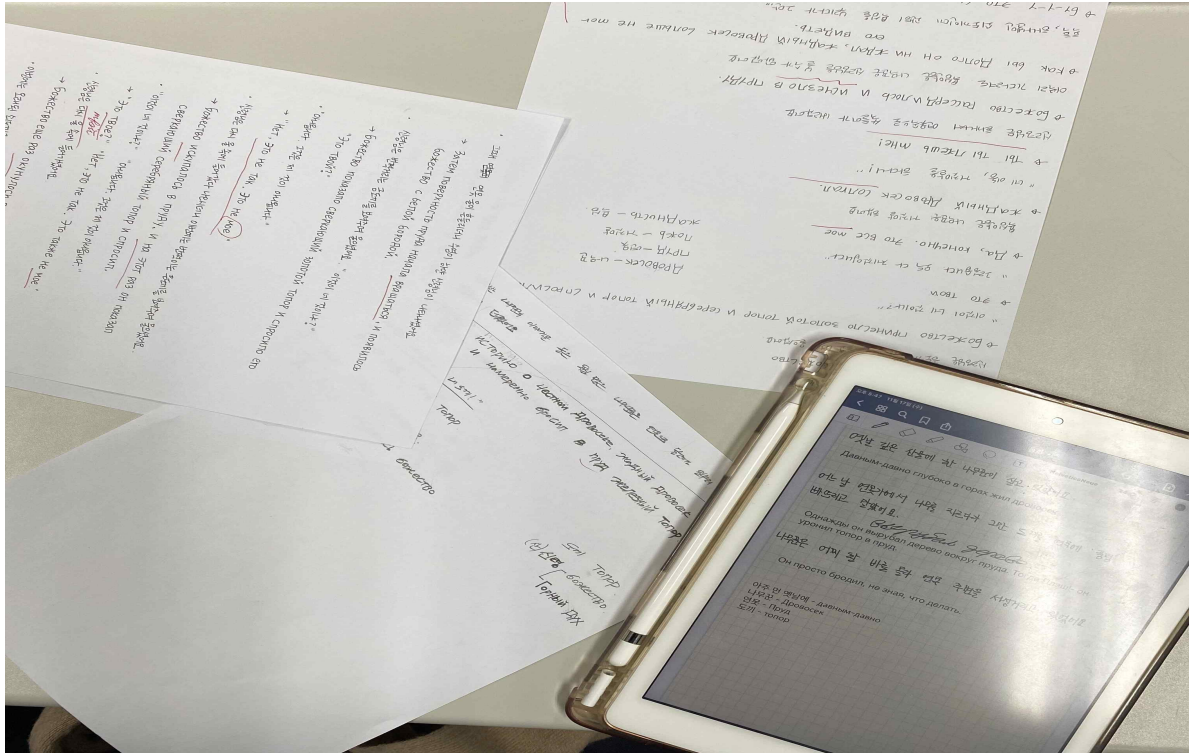
2회차 사진 및 결과물



## 2021년 2학기 소모임 3회차 활동보고서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2팀	지도교수	최 종 술 (인)
일시	2021-11-17 (수)	장소	대면 : 송백관 E403
참석자	박선우, 이지훈, 전경미, 허민주, 권민서		
3회차 목표	금도끼 은도끼 동화책 번역진행, 삽화제작		
내용 및 과정	<p><b># 동화책 번역 및 검수 진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원들과의 회의 결과 삽화진행 파트별 번역 담당하기</li> <li>- 각 인원 본인이 맡은 부분 번역진행</li> <li>- 번역마무리 후 이지훈 팀장이 오류 및 부적절 표현 체크</li> <li>- 최종 번역 마무리는 이지훈 팀장이 교수님과 상담 후 완료예정</li> </ul> <p><b># 삽화 제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책 내용을 숙지 후 서로의 담당 파트를 정하여 제작</li> <li>- 페이지별 삽화 스케치 완료함 (배경완성은 다음주까지 예정)</li> <li>- 추후 수정 부분은 회의를 통해 진행예정</li> </ul>		
자체평가	<p>서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주어서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생각보다 빠른기간 내에 완료될 것 같아보임. 삽화를 그리는 학우들이 열정적으로 그려주었음. 다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생소한 단어도 많고 번역을 진행함에 난해한 표현이 많아서 쉽지 않았음.</p>		
다음모임 계획	11월 24일(수) 7시에 비대면 화상회의 GoogleMeet로 진행 예정		

3회차 사진 및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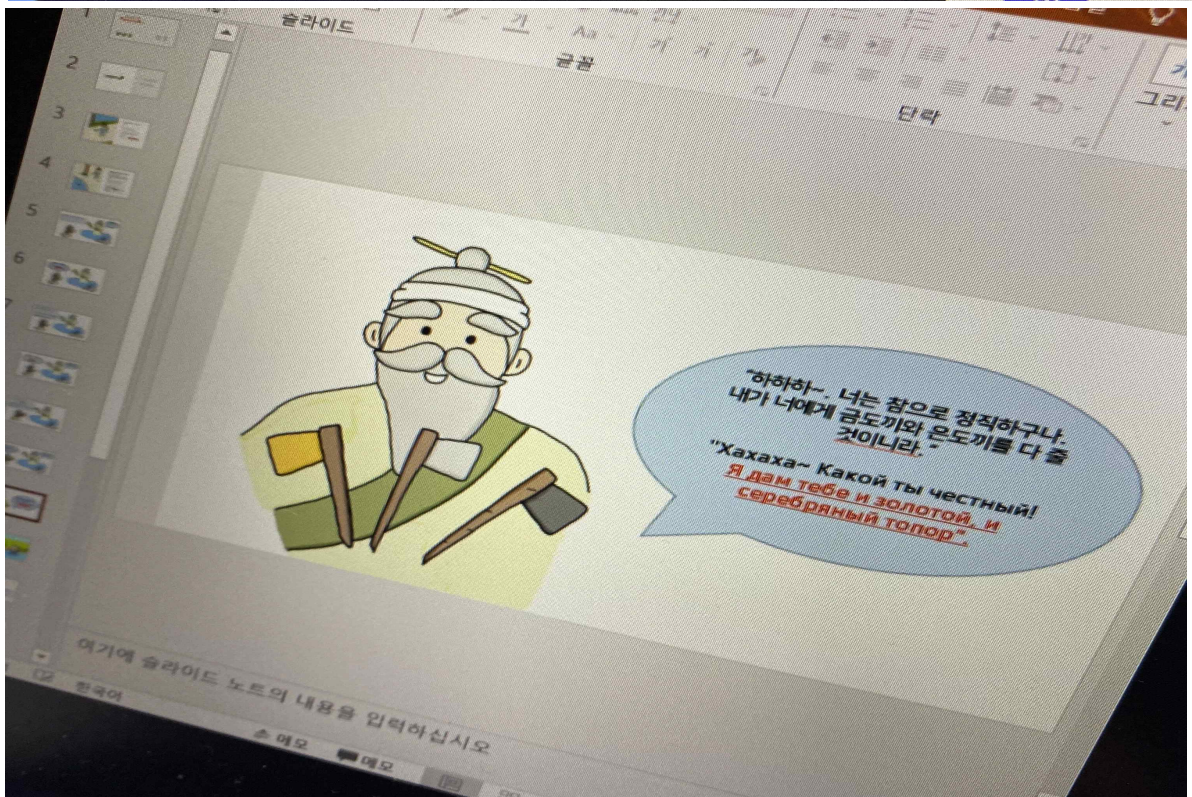


## 2021년 2학기 소모임 4회차 활동보고서

<b>소모임명</b>	От А до Я -2팀	지도교수	최 종 술 (인)
<b>일시</b>	2021-11-24 (수) 19:00	장소	비대면 : Google Meet
<b>참석자</b>	박선우, 이지훈, 전경미, 허민주, 권민서		
<b>3회차 목표</b>	금도끼 은도끼 동화책 번역마무리, 삽화완성		
<b>내용 및 과정</b>	<p><b># 동화책 번역 완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역본 최종 마무리 및 검수완료</li> <li>- 어색한 표현과 부적절한 내용 등 변경 후 적절하게 대체완료</li> <li>- 단어 및 숙어와 같은 표현 숙지</li> </ul> <p><b># 삽화 완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책 내용에 맞게 삽화 제작 완성</li> <li>- 동화책 제작완성을 위해 PPT제작 내용을 팀원들과 상의</li> <li>- PPT 파일을 공유하고 각 팀원들이 지적해준 내용 반영</li> </ul> <p><b># 최종회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24일(수)이 2팀의 마지막 최종회의 진행</li> </ul>		
<b>자체평가</b>	<p>팀원들의 적극적인 의견들로 인해 제작과정이 수월하였고 역할분담도 팀원들이 부담없이 수행할 수 있는 분량 배정이 되어 다행스러움. 삽화제작시 살짝 미스난 부분이 있지만 무리없이 잘 진행가능하였음. 삽화를 직접제작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가 힘든 인원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래동화가 조금 더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음.</p>		
<b>다음모임 계획</b>	(11월 24일이 최종회의였기 때문에 추후 모임은 없을 예정)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2팀	지도교수	최 종 술 (인)
------	---------------	------	-----------

4회차 사진 및 결과물



## 2021년 2학기 소모임 활동 후기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 1팀	지도교수	백 준 현 (인)
고민지	<p>같은 전공의 동기, 선배님들과 함께 협업하여 하나의 전공과 관련된 결과물을 도출해낸 것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소모임 활동을 통해 러시아어 역량을 발전시키고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p>		
김민지	<p>해님 달님이라는 천안 지역의 전래동화를 상명대학교 러시아지역학권 학생으로서 전공을 살려 번역 할 수 있음이 뜻깊었습니다. 학우들과 소모임으로 작업함이 즐거웠고 함께 동화책을 만들며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p>		
권혜정	<p>4년동안 배운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또 다른 활동을 한다는 것이 가장 의미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마지막 학기를 후배들과의 교류 없이 마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 속상했지만 소모임을 통해 그 아쉬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이후로도 소모임이 계속 운영되어 다양한 작품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p>		
문하윤	<p>소모임이라는 하나의 활동을 통해 1학년 학교 생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학년 상관없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우리나라의 동화를 직접 번역하고 만든 동화책을 다른 나라에 나눠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는 것이 매우 뿌듯했습니다!!</p>		
이은미	<p>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중 하나인 '해님 달님'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그림도 그려넣은 활동은 제게 정말 특별했습니다. 익숙치 않은 러시아어였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특정 한국어에 대응될수있는 러시아어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비슷한 의미들의 단어들 중 가장 의미가 적합한 하나를 선택해 번역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를 러시아어로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스스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p>		

## 2021년 2학기 소모임 활동 후기

소모임명	От А до Я - 2팀	지도교수	최 종 술 (인)
권민서	<p>러시아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동화책을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배들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또한, 번역을 하며 주로 동화 속에서만 사용되는 러시아 단어를 알 수 있었다.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여운 동화 그림도 그려서 재미있게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었다.</p>		
박선우	<p>제일 먼저 선후배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좋았고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아가는 문법적 어휘적 요소들이 있어서 배움에 있어도 큰 도움이 되었다. 러시아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활동이어서 흥미롭게 진행하였다</p>		
이지훈	<p>안녕하세요 글로벌지역학부 16학번 이지훈입니다. 이번 동화책 소모임으로 제가 느낀점은 동화책과같은 우화를 번역할때 사용하는 어휘는 폭이 넓고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어휘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배우는 어휘들 보다는 사용도가 적겠지만 그럼에도 이를 무시할수 없으며 보다 러시아어를 깊게 학습하기 위하여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낮은 연령대를 위한 번역본이라 쉬운어휘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기에 많은 고민을 했던거 같습니다.</p>		
전경미	<p>동화책 소모임을 통해 동화책 번역과 삽화 그리기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재밌었습니다. 또한 동화책 선정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나온 완성본을 보며 뿌듯했고, 한국어 동화책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면서 새로운 단어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p>		
허민주통일	<p>어렵다고만 생각하던 러시아어를 동화책에 적용시키니 접근하기 좋았던것같다. 그리고 글의 번역과 표지, 그림등 을 그려가면서 책을 만든건 처음이라 뜻깊었다.</p>		